

2026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사회 I]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 시험시간은 90분이며, 각 문제의 소문항별로 기재된 글자 수를 준수하여 답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에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정색 볼펜**으로 정확히 기재하시고 해당란에 정확히 마킹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연필을 포함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 수정이 필요할 시 두 줄을 긋고 정정하거나 지우개, 수정테이프 등을 활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에는 제목을 쓰지 마시고,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답안에는 자신의 신상에 관련한 내용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습은 문제지 여백**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 문제 1 ]

- (1) (가)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의 원인을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다)와 (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서술하시오. (350±50자, 70점)
- (2) 인공지능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을 (마)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이러한 평가를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바)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350±50자, 50점)

(가) 아마존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활용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대규모 지원자를 빠르게 평가할 수 있고,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채용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데이터 편향성과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윤리적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2018년 아마존의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은 남성 지원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성차별적 결과를 낳았다. 이 시스템은 높은 성과를 보인 남성 직원 중심의 내부 데이터를 학습시킨 결과, ‘여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이력서를 자동으로 낮게 평가하고, ‘실행된’, ‘성취된’ 등 남성 이력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훈련되었다. 이 사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보여준다. 효율성과 객관성을 내세운 기술이 오히려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화할 수 있으며, 인간의 편견이 데이터 속에 내재된 채 강화될 위험이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정교한 형태의 차별을 낳는다면, 기술 발전과 윤리적 책임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나) 예측 AI는 과거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미래의 행동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조직의 누적된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직원 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직무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를 선별할 수 있다. 예측 AI의 주요 강점은 객관적 요인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향후 직무 성과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편향을 줄이고 인재 유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맞춤형 역량 개발 계획 수립, 급여 수준 제안, 구조조정 가능성 평가 등 위험도가 높은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더 나아가 누가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지, 핵심 인재의 동기부여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전략적 인사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구조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예측 AI는 결과를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어 신뢰성이 높다.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능을 검증하고 모델을 정교화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 규제 준수와 투명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다) 롤스(J. Rawls)는 정의로운 사회를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로 설명하였다. 그는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 등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이 한 사람의 성취나 지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우연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이러한 사회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을 쓴 평등한 개인들이 계약을 맺는 가상의 원초적 상황을 설정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된다. 그는 그 원칙을 두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모든 사람은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질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처럼 롤스는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보았다.

(라) 공동체주의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덕목을 중요하게 여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특정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그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가치관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도덕적 성장을 이룬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개인의 선택과 자유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으며, 공동체의 가치와 선이 개인의 판단과 행위에 반영되어야 한다. 샌델(M. Sandel)은 국가는 단순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립적 존재가 아니라, 시민의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양하고 공동체의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인용하며, 모든 정치 공동체는 ‘가치 있음(goodness)’을 추구해야 하며, 법은 시민을 정의롭고 덕 있게 만드는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국가는 가치 중립적이어서는 안 되며, 공동체가 지향하는 선(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각 국가는 공동체적 목적과 도덕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시민 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 칸트(I. Kant)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도덕적 행위의 가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의무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내는 것은 선의지로, 선의지란 어떤 목적의 성취가 아니라 실천 이성에 의해 받아들여진 의무가 옳다는 이유에서 그에 따르려는 의지를 뜻한다. 또한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고 하면서, 모든 인간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칸트는 도덕 법칙의 형성과 실천이 가능한 존재는 이성적 자율성을 갖춘 인간뿐이라고 보고, 인간이 자연이나 동물에 대해 가지는 의무는 인간의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간접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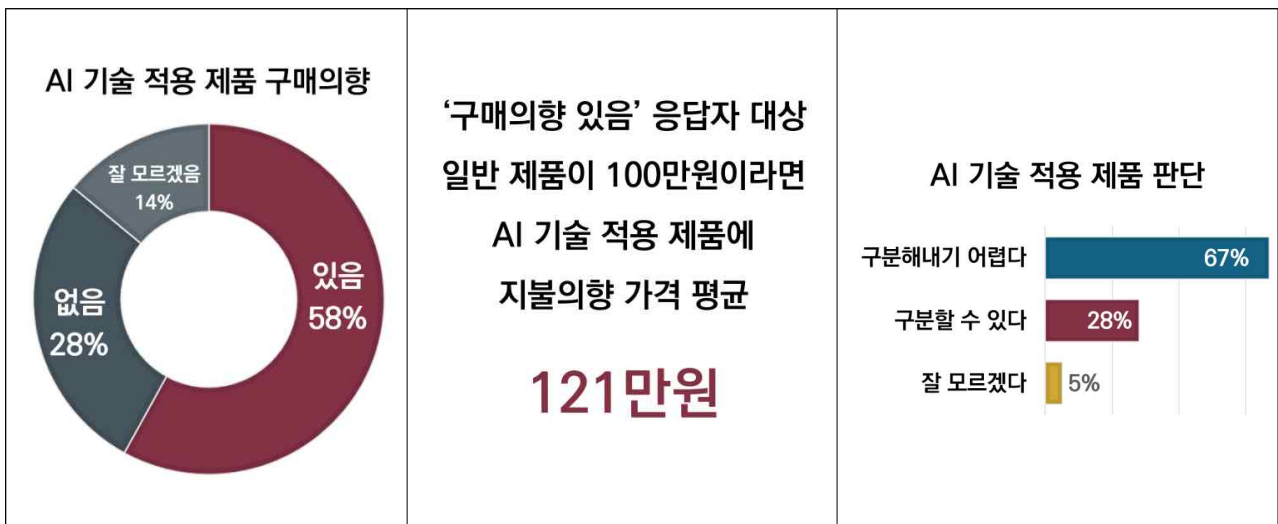
(바)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행위의 결과, 즉 행복의 증진 여부로 판단하는 윤리 사상이다. 벤담(J. Bentham)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라고 보았으며, 쾌락의 양을 극대화하고 고통의 양을 최소화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공리의 원리’ 혹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라 부르며, 도덕 판단의 기준을 효용에 두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을 질적으로 동일하게 간주하여 쾌락의 양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양적 공리주의’로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고귀한 정신적 가치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밀(J.S. Mill)은 이에 대해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하면서, 지적·도덕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질적 공리주의’로 불린다.

[ 문제 2 ]

(가)의 AI 워싱 유형에 대한 근거자료로 [그림] 'AI 워싱 인식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고 할 때,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 설명하시오. 또한 (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4단계 중 (가)의 AI 워싱 유형이 각각 어떤 책임을 불이행한 것인지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 (라)를 기반으로 세 가지 제시하시오. (600±50자, 80점)

(가) AI 워싱(AI Washing)은 '그린워싱(Greenwashing)'에서 유래한 용어로,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린워싱이 친환경이 아닌 제품을 친환경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라면, AI 워싱은 인공지능 사용 여부나 수준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이나 AI 기능 탑재 제품이 출시되면서 AI 워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AI 워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과장형 워싱은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AI 기능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세탁물이 소량일 때만 AI 모드가 작동하는데도 이러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AI 기술 역량을 허위 광고한 투자자문사에 총 4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음식주문 자동화 솔루션 회사를 AI 기능을 과장·허위 공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둘째, 은폐형 워싱은 실제로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침묵하는 것이다. 미국의 한 건강보험 회사는 보험금 지급 결정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AI를 활용한 시스템으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알고리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피하면서도 인공지능의 효율성을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한 언론 매체는 AI가 작성한 기사와 제품 리뷰를 사람이 쓴 것처럼 게재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콘텐츠의 출처와 작성 과정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저널리즘의 투명성 원칙을 훼손하는 전형적인 은폐형 워싱 사례이다.

[그림] AI 워싱 인식 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25.7월)



(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제 활동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동시에 사회적 책임의 일환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경제 활동으로 생산되는 이익이 사회를 순환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에만 머문다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은 공동체의 중요한 행위 주체로서 경제적 책임을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수용하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캐롤(A.B. Carrol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4단계 피라미드로 제시하였는데 각 단계는 위계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경제적 책임은 가장 기본이 되는 책임으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으로 다른 책임의 기반이 된다. 법적 책임은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사회가 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다. 법적 책임은 최소한의 의무로서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윤리적 책임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더라도 사회가 기대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하게 경영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포함된다. 법적 책임이 '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윤리적 책임은 '해야 옳은 것'이다. 자선적 책임은 가장 높은 단계로, 기업이 좋은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에 자원을 기여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다) 외관상 차이가 없는 두 제품 중 하나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내구성이 뛰어나지만, 다른 하나는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쉽게 망가진다고 하자.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들은 적어도 한 개에 4천 원은 받아야 수지를 맞출 수 있지만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은 한 개에 2천 원만 받아도 충분히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어떤 제품이 좋은 재료를 사용한 제품인지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이 제품 한 개에 3천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을 꺼린다면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은 결국 문을 닫거나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하여 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시장에는 질 낮은 재료를 사용한 저급한 제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시장은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 첫째, '신호 보내기(signaling)'를 촉진하는 제도로, 정보를 더 가진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입증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품질보증제도나 품질인증제도를 법제화하여 판매자들이 신뢰할 만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중고차 판매상의 무상 수리보증제도나 정부 인증 마크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골라내기(screening)'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사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통해 구매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가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라) 시장경제 체제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업 간의 담합 행위를 비롯하여 각종 로비 활동, 과대광고 등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는 시장경제 체제의 작동을 방해한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면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